

# 재미마주 이호백 대표

## 혼을 바친 ‘그림책 인생’ ... 2006 라가치상 수상 이끌어 “아동문화, ‘부록’ 취급 금물 ... 투자와 노력 아끼지 말아야” 《마법의 병》, 1년 반의 세심한 분석 기획

재미마주의 그림책 《마법의 병》이 ‘2006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픽션부분 ‘라가치상’을 수상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수상의 영광을 얻은 작가 고정숙 씨. 그의 뒤에는 국제대회 경험이 많은 출판사 재미마주의 이호백 대표가 있었다. 그는 수상의 의미보다 박람회 출판 자체에 더 무게를 신는다.

“유럽의 명성있는 출판사들 뿐 아니라 일본, 중동, 중국, 남미 등에서 출간된 어린이 책 가운데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참가 합니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아동출판사가 참여하는 박람회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40개국 2,500여 작품이 출품되는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은 어린이 책 박람회 중 규모나 명성에 있어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재미마주는 96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에 참가한 이력이 있다.

### ‘어린이 책, 작가·출판사 혼연일체대야’

“어린이 책은 기획에서 출간까지 작가와 출판사가 함께 노력해야 하죠. 영화감독이 영화 찍을 때 영화사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처럼, 작가가 기본 줄거리와 그림에 최선을 다하면 출판사는 부수적인 문제들과 책의 질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를 지원해야 합니다” 수상의 영광을 얻은 《마법의 병》 역시 이호백 대표의 세심한 분석과 기획을 거쳤다. 작가와의 유기적인 소통은 기본이다.

“작가가 이야기를 생각해 내기 전 ‘병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떠올랐고 재미난 스크랩에 관해 생각하던 중 그림책으로 엮으면 좋겠다 싶어 함께 작업하게 됐죠.

여러 아이디어 회의를 거치고 제작 직전엔 종이 질감에 관해 실험도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 기획에서 출간까지 일년 반 정도 걸렸다.

재미마주의 기본방침은 ‘한 권의 그림책 안에서 작가 개인의 진정한 느낌과 생각이 그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호백 대표는 경영자일 뿐 아니라 그림책 작가로도 이름이 높다. 2003년 출간된

그의 책 《도대체 그동안 무슨일이 일어났을까》는 그해 <뉴욕타임즈>가 선정하는 ‘올해의 그림책 베스트10’에 올랐고, 케인밀러 출판사(Kane/Miller Book Publishers)에서 출간돼 미국 전역에 소개됐다. 뒤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일본에서, 2005년에는 프랑스에서도 출간된 바 있다. 이밖에 《도시로 간 꼬마 하마》《쥐돌이는 화가》, 그리고 최근작 《토끼탈출》에 이르기까지 그가 그린 책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이야기와 따뜻한 색채의 그림으로 호응을 얻었다.



라가치상을 받은 《마법의 병》에 수록된 그림 중 한컷

국내 그림책,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작품 아쉽다’

해외 도서전에 자주 참석하는 이 대표는 “어린이 책의 국제적 수준은 산업적인 기준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이라는 틀에서 어린이책을 평가해보면 그야말로 보잘것 없는 실정이죠. 국제적으로 알려진 책이 있거나 팔리고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만화는 동남아시아에서 각광 받는 것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에서 우리 그림책 분야는 선전했다.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80인’에 한국인 작가가 4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작년엔 7

명이 선정된 바 있다. 이 정도면 우리 일러스트 수준도 세계적인 아닝가 싶지만 이 대표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림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움, 그런 완성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 적인 사고를 벗어나 좀더 넓게 멀리 그리고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존 버닝햄, 앤서니 브라운 등 해외에서 각광받는 유명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 그의 평가는 최근의 아동출판계에 대한 성도로 옮겨왔다.

“어린이 책 선진국들과 경쟁을 하려면 책을 둘러싼 어린이 문화환경이 비슷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부모가 어린이 책을 골라 주려면 서점을 가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동네 서점이 없어요. 선진국들은 어느 도시든 동네 서점이 있고 그 중에서도 어린이 책이 가장 예쁘게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버드나 스탠퍼드 같은 대학 서점에 가봐도 시즌별로 어린이 책이 가장 잘 전시되어 있다. “학습지·만화 일색인 서점으로 둘러싸인 우리네와 그런 선진적 환경의 눈높이가 같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대표는 “그런 부분이 국제화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 ‘어린이 문화, 장삿속 안돼’… 투자와 노력 기울여야

이 대표는 오는 5월 열리는 “과주어린이책잔치”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의 주장대로 라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작가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어린이 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어린이 용’ 이라하면 뭐든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기실 애들을 장사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진짜 속셈이죠. 어린이가 돈을 벌게 하는 수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단 문학, 그림, 편집 등 어린이 문화상품 개발에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어린이물이 성인의 그것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문화적 풍토를 강하게 비판했다. 어린이를 위한 것들을 ‘부록’으로 치부하는 생각을 버릴 것을 주문한다.

“기업이 장사를 하더라도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잘 되기 힘든 것처럼 어린이 문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좋은 책 하나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도 해야 하고, 외국 여러 출판사들이 좋은 책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 관심을 갖고 지켜 보며, 시간과 열의를 갖고 많은 투자



이호백 대표는 어린이 책 뿐 아니라 어린이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를 해야 합니다.”

#### 파주에 ‘어린이 책 예술센터’ 개설 작업

이 대표는 ‘말보다 행동’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다. 현재 그림책 작가와 편집인, 어린이 책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자료도서관 건립을 진행중에 있다. 최근엔 파주에 설립된 ‘출판도시 정보도서관’ 안에 ‘어린이 책 예술센터’를 개설하고 그림책 관련 자료들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한창이다. “어린이 행사라고 해서 아이들을 즐겁게만 해주는 것은 무의미하며, 어린이 책에 관해 누적되는 정보들을 모아야 하고, 그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어린이 책 소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엔 끊임없이 자기 분야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는 시대잖아요. 사서, 어린이 센터 운영자, 부모, 교사들은 특히 쏟아져 나오는 어린이 책에 관해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정보를 교환해야 하죠.”

이 대표에 따르면 우수한 어린이 책은 이미 검증되고 분류돼 있다. 한 세대를 넘어 읽혀오고 있는 수많은 양서들이 모두 그런 것들이다. 그런 일차적인 읽을 거리들을 어디선가 모아놓고 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는 “어린이를 위한 좋은 책은 넓은 시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국제적 시각을 갖추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호백**

취재\_송보경 기자 사진\_박신우 기자